

## 11 월 5 일 요 8:51-59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11 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 누구든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생을 마치는 날, 내 인생이 끝날 날, 곧 내가 죽을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래 사셔서, 인생의 끝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월의 속도는 더 빨리지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8.8 세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8 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니까 그 중간쯤인 80 세쯤이 평균수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100 세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일 이십년 더 사는 것뿐이지, 그 후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히 9:27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간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조금 적게 살고, 조금 오래 산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는, 이런 현실을 초월하고,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여,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같이 51 절을 읽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을 느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죽지 않는 처방책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을 수 있는 처방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겨보신 분이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현자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충격적인 처방책과 해결책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같이 58 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라고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무려 2000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1 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 1:1,2,14)**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훨씬 전,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2000 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하신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죄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이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사실 그대로 믿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오만함과 교만함에 도취되어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같이 53 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 1:4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이상을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요 10:28 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먼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간 최고의 한계, 도저히 인간들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죽음의 벽을 깨뜨려주신,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벽을 깨뜨려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포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죽지 않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사는 성도들은, 공산당 정권에 의해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6,7 개월씩 감옥 생활을 해야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중국에 사는 성도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한 권 가져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들의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에는 주일 아침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나 도보로 서너 시간씩 걸려서 교회로 찾아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재판없이 삼년까지는 감옥살이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자녀들이 자기들 때문에 학교에서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옥 속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시다.

왜 이런 생활을 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극심하던 그 당시, 어떤 분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아마 교회들은 텅텅 비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교회 성도가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핍박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 교회도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삼백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믿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이 시작되자, 놀랍게도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의 장막이 열렸을 때, 5천만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핍박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함과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중국 교회는 핍박받을 때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 파편과 같은 교회가 되자**”말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번은 지하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회중 가운데 공산당 정부의 첩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즉시 체포하려고, 지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산당 첩자가 있듯이, 반대로 경찰서 안에는 그리스도인 정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원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 날 공산당 첩자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들까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 목사님은 설교 단에 올라섰습니다. 강단에 올라선 목사님은 자기 앞에 놓인 물이 담긴 큰 유리물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유리물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유리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조각들을 발뒤꿈치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밟으면 밟을수록 파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유리조각도 퍼졌습니다. 이렇게 한 2-3 분 동안 유리 조각을 짓밟으시다가 다시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당국에서 나온 사람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설교였습니다. 참으로 명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리조각은 밟으면 밟을수록 유리파편은 더 많아지고, 더 멀리 흩어집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고 말씀이 퍼져나가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핍박이 중국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아는 중국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얽매어서, 이 세상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같이 56 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었습니다.

창 12 장 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 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 한 족속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은 유대인 한 민족에게만 두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즉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도 풍요로운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 4:35 절 말씀과, 마 9:37,38 절** 말씀을 계속, 강하게 제 마음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안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의 첫번째 기도 제목을, **“성령충만 하여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로 삼고 기다리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기다리는만큼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젊은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 의료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피를 뽑아서, 자기 몸 속에 수혈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와 자기 모교인 존 홉킨스 병원에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젊은 의사는 병에 걸려 아픔과 고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미국 의사들은 그 병의 치료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그 치료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서 살 수 있는 처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치료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치료법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법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치료법을 감춰두고 있다면 그것은 큰 범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치료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방책을 사람들에게 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주시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다른 영혼들도 영원히 죽지 않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